

가나 이명석·최미애 선교사

선교지에서 매년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한 기대만큼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는지 지난 해를 돌아켜 본다. 이번에는 도림선교신문을 통해 주로 협력하는 가나교회의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2014년 첫 주일은 이명석선교사에게 있어 아주 감격적인 주일이였다. 오도콥(텔레비전)교회가 지난 2년 동안 개척하였던 아히메수교회에서 세례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아히메수교회는 작년에 도림교회의 지원으로 우물관정을 시설했던 곳이다.



오도콥(텔레비전)교회 나티장로님이 매주일 아침 험한 비포장 길을 지나 주민들을 격려하고 오도콥(텔레비전)교회 교인들이 전심으로 기도한 결실이 드디어 맺어졌다. 그날 이명석선교사는 23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아직 교회당도 없어서 나무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지만 모두 감격과 기쁨으로 세례식에 임했다. 오도콥(텔레비전)교회 교인들도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 아히메수교회로 다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세례자들의 대부 대모가 되어주었다. 특히 선교지의 교회가 스스로 자립했을 뿐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어 이웃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로 인해 생기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세례식 날엔 아코솜보시찰지역에 함께 하는 교회들이 협력하여 간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었다.



지금쯤 건기철이라 시골에는 물을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인데 작년에 시추한 우물관정으로 인해 아히메수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이 해소되고 교회도 새롭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다. 그날 세례식에서는 감격적이게도 이 우물에서 길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특별히 세례받을 교인 중에는 그날 아침 출산한 교인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겠다하여 집에 방문해서 세례를 주었다.



오도콥(텔레비전)교회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물관정을 평지보다 서너 배 깊이 파야했다. 이로 인해 일반 수동펌프로는 물을 길어 수가 없어서 전기펌프를 달아야 하는데 전기도 새로 끌어와야 해서 아직 완공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기도하기는 전기를 끌어오는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오도콥(텔레비전)교회 주일학생들이 물을 길러 멀리 산 밑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정수되지 않은 물로 인해 생기는 수인성 질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기드온 군인교회

기드온교회 김기문 목사

얼마 전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종교간 신뢰도 조사에서 기독교가 한국 대표적 종교 중 천주교, 불교에 이어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이제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며 선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다. 군대에서도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초코파이가 통했지만 이제는 병사들 월급도 많이 나오고 돈이 그리 궁하지 않는 상황이니 말이다. 과거정부에서 무종교도 종교니 강요하지 말라는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서 이제 간부의 교회 출석 강요는 옛말이 되어 간다. 따라서 현재 군대에서의 선교 정책을 아주 디테일하게 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드온교회에서는 병사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교 정책을 쓰고 있다. 감동을 주어 교회 출석을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 정책은 병사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드온교회에서는 그 방법이 좀 남다르다고 봐야 한다.

기드온부대에 신병이 오면 주일부터 열렬한 환영에 이어 점심을 엄마표로 해주어 맛있게 먹고 여러가지 선물을 준다. 그리고 오후에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상황으로 설명해주어 서서히 기독교로 인도한다. (절대로 처음부터 교회 나와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하고,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 생활로 귀의한다는 결론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교육을 다 받은 뒤에는 거의 99%가 이제는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게 되었고 군대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사회 나가서도 신앙생활하겠다는 고백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군대생활하며 전역할 때에는 전역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해주고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준다. 물론 훈련장에도 찾아가서 간식을 나눠주고 훈련 짬짬이 사진 촬영도 해주어 교회오면 인화된 사진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매우 귀한 일이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대장과 여단장 역시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 전역하면서 병사들이 교회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한 고백을 들어보면 한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제가 군대오기 전에는 생활의 원칙도 없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군대오고 특히 교회 와서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몸도 불편하신 목사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잠 잘 때 옆 전우에게 기도하자고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병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욕도 많이 하고 거칠게 살던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 놀라기도 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전역시키면서 들었을 때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김기문 목사는 간증한다.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선교, 이제 더 효과적으로 장병들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역들이 전군에 이어지길 기대된다.



기도해주세요.
① 컴퓨터훈련학교 선교사역, 우물관정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루어지도록.

도림선교신문을 발행하며...

사도행전 1:8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직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 외에는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실 분이 없으며, 성령님 외에는 복음을 전할 열정을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노력과 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임하시면'이란 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

2.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다나미트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내 안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림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도림의 성도들이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고 각각 다른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영등포를 중심으로 내 가족을 비롯한 일가친척부터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제1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2세대는 유럽입니다. 제3세대는 미국입니다. 이제는 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처럼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명철 목사 드림

국내선교지소식

1.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는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로 1958년에 시작된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기관이다. 지난 시간 동안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57년이 지난 후에도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자의 좋은 친구로, 소외된 이웃의 참벗으로, 이 땅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 단체이다.

- 1) 노동선교부 : 비정규 노동센터를 통해 치유, 회복, 교육 프로그램 실시
- 2) 노동복지부 : 노숙인 재활 교육, 심성 및 인성교육 실시
- 3) 협동사업부 : 다림주회(신용협동조합), 서로살림생협(소지마 협동조합)



2. 구미광명교회 - 이응성목사

경북 구미의 구미광명교회는 경서노회 소속으로, 어렵지만 든든히 서가는 자립대상교회이다. 자립대상교회로서 할 수 있는 사역에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진 사역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피할 수 없어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교회이다. 구미광명교회는 전사나섬(전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는) 운동을 통해 매월 2회 사랑의 쌀과 반찬 나눔을 하고 있으며, 무료영양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전도 사역에 힘쓰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사역을 통

해 기관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병원 치료비 등 비용지원과 체불임금 해결에도움을 주고 있다. 구미광명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오신 목적대로 세우고 섬기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3. 구미평안교회 - 김동국목사

구미평안교회는 경서노회의 소속교회로서, 2006년 4월 18일 구미형곡동에 터를 잡고, 7월 6일에 개척설립예배를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현재의 교인수는 아동부 10명, 학생회 8명, 세례교인 23명이며, 장년 재적 30명에 주일예배 출석은 20-25명 정도이다. 구미평안교회는 탈북자 사역과 함께 지역의 저학년들을 위한 '무료공부방'을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했으며, 주변 교회의 인식변화를 위해 길거리 청소와, 교회 이름으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최근 7년째 지불하고 있으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밀반찬을 나누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이제 구미 평안교회는 경북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고 살고있는 약 1,000여명의 탈북자들의 바른 정착과 영혼구원의 선교사역이 사명임을 믿고 열심히 사역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작은 도서관'과 '어르신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교우가 합심 단결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이다.



사회를 위해 '작은 도서관'과 '어르신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교우가 합심 단결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이다.

Philippines



필리핀

최동아 · 홍경신 선교사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말이 말처럼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을 전한지도 몇 달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사랑하는 도림의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동아선교사에게 있어 지난 1월 19일은 참으로 뜻 깊은 주일이였다. Osorio Holy Stone Church 창립 7주년이 되는 교회창립 주일이였다. 이제 제법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가고 있으며, 선교사의 도움이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창립주일 행사를 준비했다. 잔치음식도 준비하고 손님들은 알아서 선택하여 초대하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충당했다.



교와 영어 아카데미 지역아동을 위한 유치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제법 큰 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작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도림교회 성도들과 정명철목사님의 기도예 응답하셨음을 확신하고 기도드리고 있다.

선교지에서 사역들을 돌아보면 무척이나 감사한 일들이 많다 무엇보다 교회의 특별예산에 염소로 인하여 축적된 돈이 80,000원이나 있었다. 단순한 계산으로 환산하면 호소리오 교회의 성도들이 염소로 인하여 적어도 1,000,000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다는 계산이다. 특별예산이 있다는 것은 Goat Bank 조직이 느슨하지만 자체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2014년에는 100마리 이상의 염소를 분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최동아선교사는 필리핀 선교 10년차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난 10년의 선교를 되돌아보면서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회개척 사역과 기술학교사역, Goat Bank사역을 체계화하고 더 조직화하여 이것을 통해서 필리핀 선교의 매개체를 삼고자 한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필리핀 선교현장의 밑일이 되길 최동아선교사는 꿈꾸고 있다.

기도해주세요.

- ① 도림디아코니아 센터, PAYAPA 교회건축, 호소리오 DAY CARE CENTER 그리고 우물사역이 순조로히 진행되도록.
- ② 도림 선교농장의 염소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분양되도록.



예배의 특송도 부서별로 다채롭고 은혜롭게 준비했다. 예전 같으면 선교사가 나서서 하나하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했지만 이번 창립주일은 온전히 자체적으로 준비한 예배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1월 26일 주일은 Payapa Holy Ground Church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이 교회는 1996년에 설립된 교회로 2013년 10월 1일에 군산에 있는 교회의 후원을 통해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가진 교회이다. 지난 2009년 땅주인과 연장계약에 실패하면서 예배당을 잃어버렸던 이곳은 그동안 40여명의 교인이 모두 흩어져버린 교회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7명의 성도들을 남겨 주셔서 가정교회를 만들게 하였고 2010년부터 새 성전 부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2012년 12월 21일에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셔서 2013년 10월 1일 헌당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셨다. 이제는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여 장년부 21명, 아동부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하고 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도림디아코니아센터가 은혜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림교회의 향촌조직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으로 세워지고 있는 도림디아코니아센터는 매우 뜻 깊은 학교가 될 것이다. 본래 4월 중순경에 완공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심한 가뭄으로 물이 없어 냇가에서 등짐으로 물을 길러서 건축을 하고 있다. 현재 공정은 지붕공사와 전기공사, 천장공사, 도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아마 6월이 중순을 넘어야 완공될 것이다. 도림디아코니아센터는 이곳에서는 지역청년의 직업창출을 위한 기술학

East Timor



동티모르

이대훈 · 김현옥 선교사

신년과 설날도 지나고 어느덧 3월을 맞이하며 시간은 쉬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다. 언제나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런 반복되는 삶의 리듬이 인생의 우둔함을 드러낸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송년사를 읽으며 시작한 새해, 또 다짐하며 다짐하는 가운데 2014년이 '나'만의 해가 아닌, '우리' 모두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1. 이대훈선교사는 2013년에 시작한 안식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동티모르신학교> (총회 승인사업)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그 기대로 2014년에 건축물 공사와 학생 모집을 거쳐 2015년 1월 개교를 목표 삼게 하셨다는 것이다. 어느 해보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그런 가운데 동티모르 교단이 2.5헥타르(약 8,200평)의 부지를 제공하여 교단 산하 신학교를 포함한 학문의 전당을 세우고자 뜻을 모으게 되었고 설립진행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황무지와 같은 헤라 아카누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며 선교현장에서의 기도와 땀 흘림 속에 우리 도림의 성도들의 기도가 요구된다.



<신학교 부지, 장소: 헤라 아카누누(Akanuno, Hera)>

2. 동티모르 <베레마누레우 마을>은 꿈과 기대가 있다. 자신들의 주산물 수출인 커피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줄 유치원을 세우는 일이다. 이 마을 중심에는 <골고다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에 유치원을 세우는 일인데 이를 위해 한국에서도 함께 뜻을 모으게 되었다. <델리시아>는 서울시에 등록된 커피협동조합 이름이다. 델리시아는 '맛있다'는 의미의 포어로, '커피와 선교'가 만나 세우게 된 커피협동조합이다. 이들은 베레마누레우 마을의 꿈인 유치원 건립을 돕고 있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3. <아가페비전센터>를 2013년 1월에 오픈하였다. 이것은 현지인들에 의한 현지인 지도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끔 뼈저리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스태프들이 자신들의 일로 삼고 잘 유지하고 운영해 주었다. 이대훈선교사가 1년동안의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컴퓨터 수업은 2기생을 맞이하였고, 영어교실은 인원이 늘어 어른반과 어린이반으로 분반하였고, 25명 이상의 마을 어린이들이 방과 후 모여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아가페비전센터>는 현지마을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기증한 교육용 노트북 덕분에 2014년에는 지역의 요청인 컴퓨터 반을 더 증설할 수 있게 되었다.

4. 이대훈선교사에게 있어 지난 10년은 참 빨리 지나간 시간이였다. 그는 다가올 10년도 기대와 도전 속에 참 빠르게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선교현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한다. 이대훈선교사는 지금도 도림교회와 함께 동행함에 감사하며 행복을 고백한다. 선교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기대를 기도제목으로 드러본다.



<선교협동조합 '델리시아' 전단지>



<아가페비전센터 수업 광경>

기도해주세요.

- ① 건축되는 동티모르 신학교의 전과정과 2015년 개교를 위한 학교 인허가 절차를 위하여.
- ② <아가페비전센터>의 비전과 미래가 지역을 변화시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Russia

러시아 최영모 · 박경희 선교사

러시아는 현재 전반적으로 교회와 선교사역이 점점더 침체 일로로 가고 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사역은 헌신하고 있지만 헌신적인 성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자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 헌신할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소망이 있는데 현재는 러시아 대부분의 신학교마다 학생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최영모 선교사는 묵묵히 20년간 러시아만을 사랑하며 품고 헌신하고 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최영모선교사에게 있어 먼저 떠오르는 말들이 '감사(監査)', '재판', '변호사' 등이라고 한다. 사립학교와 자선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인하여 봄부터 시작된 신학교, 기독교학교 그리고 자선단체인 아가페재단의 감사로 거의 일 년을 이어왔다. 한 고비를 넘어선 후 숨을 쉬려고 하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기에 참 숨이 막힐 것 같은 힘든 한 해였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기도를 부탁드려야 하는데, 반대로 입을 굳게 다물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최영모선교사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은 게으름과 교만을 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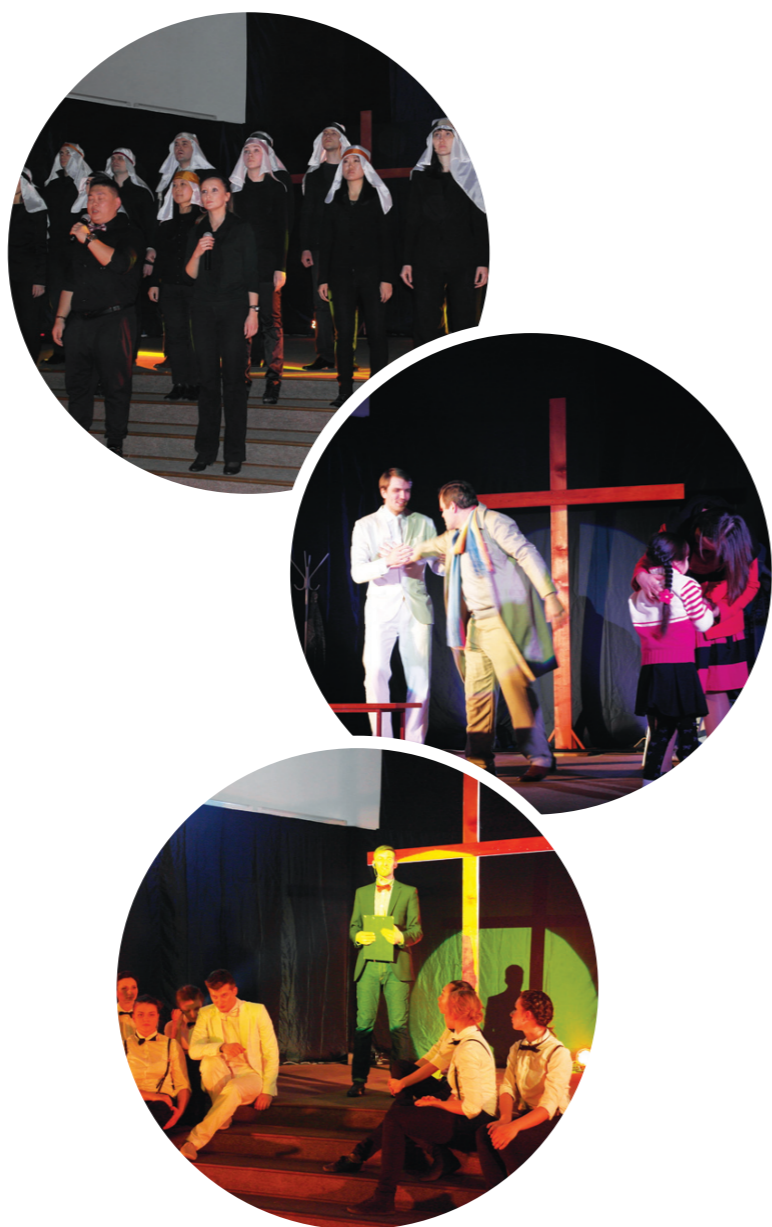
최영모선교사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온 지도 벌써 20년의 문턱에 서 있다. 2013년 12월에 교우들, 직원들, 학생들과 교수들은 20년을 축하하면서 꽃다발과 기념품을 선물로 건네주었지만 지나간 20년을 되돌아보는 그는 마음이 착잡했다. 깊은 내면의 반추(反芻) 속에서 여러 날 길게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저의 20년간의 사역이 정말 가치가 있었을까요?”
근래에 와서 현지인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그 말로 20년 사역의 자신감 결여에 대한 위로를 삼으려고 한다.

사소한 기도의 제목일지 모르지만 사소함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한다.


- 1. 아가페자선재단의 재판이 미루어졌다. 재판의 준비를 잘하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 2. 개척교회 가운데 프리오제르스크교회당의 건축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눈이 녹은 봄에는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 3. 신학교 및 기독교 학교를 통한 씨 뿌림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도록
- 4. 어느 신학자는 겸손을 가리켜 ‘하나님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라는 멋진 은유로 표현하였지만, 참으로 겸손한 선교사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최영모선교사는 돌아봄과 나아감의 조화 속에서 지나온 20년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새로운 10년을 향하여 나아가려 한다. 이를 위해 내적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하며 러시아를 마음에 담고 지난 세월 함께 해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러시아를 향하여 최영모선교사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다.



기도해주세요.

- ① 아가페자선재단의 재판이 미루어졌다. 재판의 준비를 잘하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 ② 신학교 및 기독교 학교를 통한 씨 뿌림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도록



Vietnam

베트남 김덕규 · 장광속 선교사

김덕규선교사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일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일은 그냥 넘기고 싶고 누군가 대신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많이 있어 쉬고 싶은 시간들이 많았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전한다.

올해 하나님께서 김덕규선교사를 통해 하시게 한 일 가운데 이곳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새로운 일들 중 하나는 동두천시와의 자매결연과 일본 도쿠야마 대학과 빈롱시를 자매결연 하도록 맺어 준 일이다.

동두천시는 많은 물품을 가지고와서 사랑을 나누었으며 최고의 의사진 13명과 도우미 등 25명이 와서 3박 4일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양질의 진료를 해주었다. 이들의 열정이 맘으로 범벅이 되는 것을 현지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장이하 수행원들이 노트북 컴퓨터 50대를 2개의 학교에 기증을 하면서 정식 자매결연을 맺었다. 빈롱성 고등학교 학생 24명 그리고 8명의 교사들이 한국 동두천시의 초청을 받아 다녀왔으며, 이곳 인민위원회 간부들도 함께 한국에 다녀왔다. 동두천 시장이 안수집사라 일의 진행이 빨랐고 시의회 의원 중의 한 명이 김덕규선교사의 친구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의 집사라 일이 잘 진행되었다.

도쿠야마 대학은 아시아계 학생들을 일찍부터 유치했지만 상대적으로 베트남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공부보다는 불법 체류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라 학교가 고민하던 중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것을 김덕규선교사가 중간에서 자매를 맺도록 했던 것이다. 성의 교육청 관계자들과 시청직원들이 도쿠야마 대학을 방문하여 학교는 물론 휴식처와 야마구찌 도청까지 방문하여 환대를 받았다. 감사한 것은 일의 시발점이 김덕규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베트남 현지에서는 그에 대한 마음이 움직였고, 그를 높여 주었다. 또한 ‘김목사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열매나눔재단의 소액 자본 대출사업을 통해 영세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고, 밀알복지 재단을 소개하여 고엽제환자들과 중증장애우들에 대한 협력을 가지도록 연결을 해주었다. 이러한 일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선교사에 대한 생각은 물론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었다.

무엇보다 빈롱시에 유일한 교회인 빈롱교회의 담임목사님이 김덕규선교사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 인상에 깊이 남아 있다. 망땀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일부 성도들과 함께 갔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으며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그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 이 마을을 다녀갔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가셨습니다’ 라고 하여 나중 알아보니 당신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쉽게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




지금 베트남교회는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교회 개척을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다. 핍박을 받던 시절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역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후 이제 모교회로 오고 있다. 모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도 거의 10년이 지났다. 교회가 틀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힘과 전도의 열을 가지게 되면서 예전에 모이던 그 지역 식구들에게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정부에 예배 신청을 하게 한다. 그러면 상위법은 허락을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서 허락을 안해 주기도 하지만 예배를 신청하고 모이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경찰이 마구잡이로 때리거나 감금하지는 않는다. 허락을 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 집회지만 목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계속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또 하고 하면서 임시 예배처소로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의 필요성이 생기면 또 건축 허가를 받아내곤 한다. 차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한국교회와 베트남에 교회를 많이 세워 주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한국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다. 한국 선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운 교회도 아니다. 저들이 주인이고, 선교사는 옆에서 조력자로서 힘이 되어주고, 한국 교회를 소개해 주어 협력하여 교회를 짓게 되었다.

지난 2월 5일에는 3개 면의 대표들의 친목 축구대회가 있었다. 한국교회 팀까지 4개 팀이 리그를 벌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한국교회와 초청하여 이루어졌고 그들의 축제로 만들어 주었다. 각 면의 주석(면장) 등 간부들이 모두 나와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 대회를 제 1회로 하고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교회 목사님이 축사를 하고, 김덕규선교사도 인사를 하며 물론 주최하는 면의 주석이 인사를 하면서 참 보기 좋은 행사가 되었다. 이런 일을 주님이 하게 하셨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베트남 현지인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가 한 것이며 주님이 하신 것이다.

기도해주세요.

- ① 베트남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교회가 베트남 땅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 ② 현지인들에 의해 세워진 베트남교회가 자립하고 베트남 영혼을 위해 변화시키는 귀한 곳이 되도록.



 **인도** 이희운·곽은영 선교사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대하 20:17)

인도생활 10년, 바다보다 깊은 속내를 숨겨온 인도가 역시 복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해감을 본다. 지난 10년동안 기독교인구가 2%에서 6%까지 늘었다는 비공식보도가 있다. 여러분이 함께 했다는 보람과 감사와 영광을 나눈다. 할렐루야~

**무한독점(어둠)과 무한공유(복음)의 무한 격전지
인도에 성삼위(TLC)의 사랑으로.**

지난 반년 이희운선교사는 생존(믿음지키기)의 기간이었다고 말한다. 불의와 부패, 선교 금지에 맞서서 추방을 각오하고 시골마을에서 주민들과 때론 집에서, 때론 맨 땅에서, 때론 대나무교회의 침낭 속에서, 먹고 마시며 잠을 자면서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보게 되었다. 99% 우상숭배의 마을 Hossur에서 멈출 수 없는 살바씨름을 다시 재개하고 있다. 3년을 최선을 다하자며...

- 1) 세 천사 - 인도의 법과 극우 힌두교도 때문에 불법간접선교를 하다가 직접 마을로 뛰어 들었다. 기대도 안했던 힌두교의 두 청년과 한 기독교 가족이 이희운선교사에게 40일동안 매 2끼 식사를 제공하거나 취사하여 섬겨주며 여러 편의를 제공하곤 하였다. 두 청년이 세례를 받고 싶어하나 지역 어른들을 두려워하여 세례는 계속 미루고 있지만 한 명은 열심으로 신앙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40일간 우기에도 불구하고, 우산도 없이 매일 세 번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에 말씀과 기도를 한 번도 거르거나 늦지 않고 120번의 시간을 정확히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 2) 안나암마 - 60세 정도의 초신자가 병마에 눌려서 2주간 식음을 전폐하였는데 그 딸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서 이희운선교사와 신자소녀의 심방과 기도를 통하여 병마가 물러나고 깨끗이 낫고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 신앙이 성장하는 중이다.
- 3) 어린이, 청소년들 - 호기심과 기대로 매일 이희운선교사의 숙소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이 찾아오곤 한다. 축복기도를 받고 싶어하며 무엇인가 얻어갈 게 없나 기대하며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곤 한다.
- 4) 알코올중독자들 - 낮은 카스트, 가난, 문맹 등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현금을 구걸하곤 한다. 그들은 정부와 상층 계급의 무료제공에 중독된 비참한 심리상태이며, 남녀노소가 종교에 관계 없이 심각한 공짜, 구걸, 거짓, 속임에 중독상태이다.
- 5) 휴가성경학교(VBS) : 물려온 어린이들 - 점심을 제공하는 5일 간의 성경학교에 평균 40여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매일마다 이마, 미간 또는 목에 힌두교 표시를 하고서 대나무교회에 놀러오곤 한다. 이들은 인도의 베이비붐 세대이다.

6) 성탄절 참여 : 200여명의 남녀노소가 몰려들어 성탄 축하와 점심 비리야니(인도식 짬뽕밥)먹고 성탄 선물을 나누었다. 특히 지역 경찰 고위층의 가족이 참여하고 시멘트 3포대 후원을 약속하고 갔다.

지난 12월 첫 주에는 총회장, 사무총장, 기획국장, 세계선교부총무와 남인도 교단의 총회장, 사무총장, 9명의 주교 등과 총회파송선교사들이 참여하여 인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선교협력을 체결하였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에큐메니칼선교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의 하루 금식, 지난 1월의 3일 금식-물, 음식 전폐-으로 새해, 새출발을 할 것이다.



① 대나무교회를 건축하며
② 성탄절을 준비하며
③ 호수르, 방학성경학교
④ 아쌈교회의 세례식
⑤ 예장통합총회와 남인도교단의 선교협약

기도해주세요.

- 1) 선교사의 삶이 예수님의 영혼육을 닮아갈 수 있도록.
- 2) 현지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성장이 이루어지도록.
- 3) 아쌈, 바다미, 호수르의 교회건축의 시작과 마무리가 은혜속에 이루어지도록.



 **체코** 이종실·김진아 선교사

체코에서 사역중인 이종실선교사는 2014년 1월부터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동역자 류광현선교사에게 위임을 하였다. 이미 류광현선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사역을 2014년 1월부터 위임한다는 의견을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 당회와 한인공동체 집사 월례회에서 공식화시켰다.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의 사역은 1997년 체코 형제복음교단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 교단간의 선교 협정의 토대 위에서 교단의 협력과 지속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선교활동이다. 또한 체코 한국 기독교인들을 교류시켜 폐쇄적인 체코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델교회로서 교단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이다. 이를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파송 선교사들의 노동허가와 체류를 위해 교회 목회자 비자발급 등 유무형의 지원을 현지 교회와 교단이 아끼지 않았다.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의 존재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프라하에 4-5년 정도 일시 체류하는 한국 기독교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교회에 대해 일일이 매번 새롭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프라하 꼬빌리시 한인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계도화된 해외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많은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 뿐 아니라 신학자들 역시 해외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바람직한 형태로 “프라하 꼬빌리시 한인교회”를 평가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사례가 조금씩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는 해외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방향 제시 뿐 아니라 체코교회 그리고 동서유럽 선교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선교 베이스”이기도 하다.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를 발판으로 앞으로 류광현선교사의 선교사역은 더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류광현선교사는 현재의 활동을 위해서는 물론이며, 동시에 맡고있는 중앙유럽선교연구센터의 연구 기획업무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 WCC GETI 프로그램, 유럽 기독교청년들의 2년마다 열리는 Mission-Net 집회, 카이로스 선교교육 지도자과정 등에 참석하며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유럽선교연구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교회재산 반환법 제정후 체코 형제복음교단이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는 일”을 비롯하여 “청소년 선교를 통한 지역교회의 활성화”와 “한국교회들의 경험을 체코 선교의 자원화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체코는 현재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회재산을 국유화하는 대신 교회 성직자들에게 정부가 봉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교회재정에 관한 법이 1948년에 제정된 이후, 1989년 체코 공산당 지배의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후 자연스럽게 교회재정에 관한 법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이 논의는 1989년 이후 재판에 걸린 교회재산(부동산)이 지방 자치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촉발하였고, 반환의 논쟁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재산이 가톨릭 교회여서 이 논의의 이니셔티브는 정부와

가톨릭 교회 양자였다. 그러나 이 논의에 대해 이미 정부의 재정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의 이해관계가 정부와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달랐고, 체코 국민의 80% 반대 여론을 의식한 야당의 입장과 함께 교회재산 반환과 보상법을 체결하는데 무려 20년 이상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여론은 악화되었고 교회내 신자들의 이탈도 이어져 10년마다 시행된 인구조사에서 기독교 인구가 매년 50%씩 줄어들어 2012년 조사에서 가톨릭 10%, 개신교 1%의 통계가 보고 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2012년 “교회재산 반환과 보상법”이 체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201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체코 개신교회들에게 교회재산 반환과 보상법 체결은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침례교회의 경우는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정부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자립형태를 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체코 형제복음교회 역시 대안은 없지만 국가로부터 재정자립은 옳다라고 생각하여 2012년에 특별 총회를 소집하여 참석 총대 69명 가운데 64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절대 다수로 통과를 시켜 정부와 교회 간의 협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총회에서도 교회의 재정자립방안에 대한 후속논의가 있었으며 총회 행정부는 지역별 노회단위로 설명회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 체코 형제복음교단의 경우 향후 국가로부터 완전한 재정 독립은 30년 후인 2043년에 이루어진다. 자립방안에 대한 논의는 총회가 지역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여서 아직 뚜렷한 대안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내 논의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안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중앙유럽선교연구센터가 앞장서서 나서기로 했다. 일단 연구센터의 회장이며 브르노 지역노회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교단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꼬르빠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를 방문하였다. 교회재정자립을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체코 형제복음교단의 전통적 교회의 형태와 교회론을 재검토하여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종실선교사와 꼬르빠 목사는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자립이면서 지역사회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동시에 재정적 자립을 노력하는 한국 교회들로부터 체코교회의 미래를 위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앞으로 중앙유럽선교연구센터가 컨퍼런스를 열어 보고회를 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WCC부산 총회에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온 체코교단 총회장을 비롯하여 총회 임원들의 많은 관심과 움직임들이 개혁을 위해 일고 있다.

기도해주세요.

- ① 경제적 위기에 처한 체코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 ② 체코 슬로바키아 지역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유럽선교 연구센터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③ 이종실선교사의 20년 체코 선교사역을 잘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후배 선교사가 세워지도록.



Kenya



케냐

김홍일·이해정 선교사

1년 반 전에 김홍일선교사는 아내 이해정선교사와 지역을 돌아보며 전도를 하던 중 한 가정에서 미간에 아이 주먹만한 큰 혹을 달고 살고 있는 것 20세를 넘긴 켈춤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보게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늘 집 안에만 숨어서 살고 있던 그에게, 들고 간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떠나지를 않았다. 사정을 들어보니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으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다보니 아직까지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조차 받아 본 적이 없는 자매였다.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만 태우고 있던 차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케냐 기독교 의사회와 협력하며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파송선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에 있는 켈춤바의 사진을 보여 주었다. 사진을 본 선교사도 켈춤바에게 큰 관심을 가지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날 이후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0월 말에 세브란스병원의 초청으로 한국에 가서 10시간 가까운 대수술을 받고 2차 수술까지 모두 무사히 마친 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이곳 캅시고리아로 돌아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앞에 가리는 것이 없이 세상을 보게 된 켈춤바가 다시 캅시고리아로 도착하던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선교훈련센터에 모여서 켈춤바를 환영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켈춤바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아무리 곳엔 날씨에도 단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그 날 전도를 나가지 않아서 켈춤바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아마 켈춤바는 오늘의 이런 새 삶을 생각지도 못한 채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 수술 전 켈춤바



수술 후 켈춤바 ▶

▶ 생명소 사업

지난 3개월 사이에 16-19번째까지 네 명의 수혜자들에게 생명소가 전달이 되었다. 각 수혜자 가정의 사진들과 이야기는 인터넷카페(cafe.~Godpeople.com/Christoper)에 소개되어 있다. 장학 사업과 같이 생명소 사업 또한 주카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며 매년 10가정 이상에 생명소

를 전달하게 된다. 수혜자 선정을 위한 지원서들이 접수되었으며 이 역시 곧 결정이 될 예정이다.

▶ 엠케우 교회, 캅시고리아 교회 헌당식

지난 2월은 캅시고리아 지역에 너무도 큰 복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던 한 달이었다. 마라노회의 켈춤바 시찰안에 있는 두 곳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기쁨의 날이었다. 그동안 은혜 가운데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성도들과 지역민들의 축하 속에 엠케우 교회와 캅시고리아 교회가 헌당식을 가졌다.

▶ 기타소식

지역의 교회와 학교들을 다니며 설교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이해정 선교사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씩 이웃 학교에서 공예를 가르치고 있으며 전도를 다닐 때 가정들을 방문할 때나 교회를 방문할 때에 늘 사랑과 종이접기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며 어린이들을 만난다.

현재 파송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세움을 받은 귀하고 값진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그저 부르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 분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걷다보면 언젠가 그 걸음은 천국 문에 이르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이 순간에도 그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의 끈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기도해주세요.

- ① 섬기는 마라켓 노회 안의 243개 지교회와 그 안에 있는 81명의 목회자 및 전도인들을 위해서.
- ② 케냐가 테러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 ③ 앞으로 캅시고리아 사역을 동역하게 될 장기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Thailand



태국

김영석·임미숙 선교사

김영석선교사 가정은 2012년 7월 26일 부터 태국의 가장 남쪽 끝인 푸켓에서 한인 공동체 사역과 미얀마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지난 7월 태국의 치앙마이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 다음으로 크고 고도 353m의 기름진 산간분지 중심부 근처에 자리잡고 있으며, 태국의 북부지역과 미얀마에 있는 산주의 종교, 경제, 문화, 교육,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치앙마이는 태국의 기독교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이며, 심장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태국의 교회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영석선교사는 치앙마이로 오면서 8월 25일 태국 프레도에 위치한 태국 농촌교회 왕 프라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태국 농촌교회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개척 6년 된 교회인데 장년 성도가 5명에 불과하고 어린이 6~7명 되는 아주 열악한 교회였다.

9월 첫 주간에는 치앙마이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라후족 마을에 의약품 을 가지고 다녀왔다. 이들에게 의약품은 양식만큼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9월 29일에는 치앙마이 던개오의 CCT교단에 속해 있는 카렌족 터프라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하게 될 사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10월 첫 주간에는 태국의 북쪽 끝에 위치한 매홍손 도의 맬라노이 군에 인접한 카렌 고산족 교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사역과 전도사역을 카렌족 사역자들과 함께 한 주간 사역하였다.



《옴넛 교회, 맬라몽 교회, 왕칸 교회》

지금까지 김영석선교사가 치앙마이에서 한 사역들은 주로 카렌족 사역이었다. 카렌족은 고산족 가운데 최대의 인구(약 35만)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사역 역시 카렌족 사역이다. 고산족들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결국 도시의 노숙자로 혹은 여자들은 건전치 못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북부 고산족 선교를 하고 있는 북태 선교사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에 거주하고 있는 고산족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각자에게 맞는 기술과 달란트를 찾아내어 자립의 기반을 창출하는 사역들을 병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적당한 센터를 알아보고 있다. 센터가 준비되어지면 자동자정비 기술, 미용 기술, 커피 바리스타 및 로스팅 훈련을 통해 고산족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카렌족 교회와 카렌족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태국은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0.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이다. 불교가 95%, 이슬람이 3%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기독교 중심 도시이며 올드 시티에 약 15만명, 주변 인구를 합하면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태국의 제 2의 도시이다. 특히 치앙마이는 국제학교 및 태국 기독교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교단 총회(CCT)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집결되어 있다. 치앙 마이는 태국 기독교의 현주소, 미래이다.

선교의 동역자인 도림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태국 교회의 한 모퉁이를 붙잡고 기도하며 사역하고자 하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길 기대한다.

기도해주세요.

- ① 카렌족 청소년들이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 및 기술 교육 센터가 잘 세워지도록.
- ② 고산족 청년들이 자립의 기반을 다짐으로 스스로 자립하여 갈 수 있도록.
- ③ 터프라판교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국** 김바울 · 이주예 선교사

중국은 아직까지 선교사를 받아주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로 선교사 신분으로는 있을 수 없는 곳이다. 만일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사역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선교사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죄에 경중에 따라 구속, 벌금 혹은 추방을 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날 가정교회 사역을 김바울선교사 가정은 묵묵히 하고 있다.

1. 사역보고

1) 처소 사역

조선족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사역이며 현재 한 가정 3명(40대 여인과 중학생 두 아들)이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 가정을 매개로 하여 조선족 및 한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다. 아직 세례를 베풀지 못했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며 저들의 마음의 동요와 변화 가운데 세례를 할 계획이다.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길 기대한다.



▲ 주일예배후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 성탄절 장식한 처소의 모습

2. 사역계획 - 미션센터사역

이들 사역방향의 총 명칭은 (HTT미션센터사역)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세 가지의 세부적인 사역이 있는데, 하우스사역(House work), 트랜지스터사역(Transistor work), 터미널사역(Terminal work)으로 진행되고 있다.

1) 하우스사역(House work)

(1) 처소사역(가정교회)

이는 기존의 처소사역이다. 처소사역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 하우스 사역이다. 무엇보다 김바울선교사는 처소사역을 통해서 현재의 사역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처소사역이 안정과 부흥을 이루어야 여타 다른 사역들의 안정과 확대를 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소가 부흥하면 분립하고 더 부흥되면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맡길 계획이다.

(2) 힐링사역

사역하고 있는 곳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고국을 떠나 타국생활을 하면서 신앙적, 심리적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상담하면서 힐링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중국인들은 한국의 80년대와 같은 문화적 경제적 성장기를 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가치들이 무너지고 개인주의화됨으로써 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힐링사역이 너무나 절실하다.

2) 트랜지스터사역(Transistor work)

이 사역은 직역하면 변환기 사역인데,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비전트립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중국선교에 대한 사명감 전환과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학생들, 청년들의 영적훈련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사역이다.

(1) 단기비전트립 사역

일주일 이내의 기간을 갖고 비전트립을 온 한국의 중·고·대학청년들과 평신도들에게 중국을 향한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이다. 몇 번의 경험 결과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절감하였다. 한국 매스컴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사적 측면에서 매우 큰 우려를 자아낸다. 그래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통해 비전트립을 오면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둔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이고 둘째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이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방문할 경우 숙소로 제공하기도 한다.

(2) 디딤돌사역(연수사역)

여름 및 겨울방학을 이용한 중국어와 영어교습 및 견문을 통한 인제 양성의 디딤돌사역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 현재도 세계의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중국어이다 (중국 본토인구 14억 명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이 사용). 이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의 국력과 인재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 영향력이 막대해지면 중국어가 영어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찌기 중국어를 익히는 것이 개인적 미래뿐만 아니라 복음 선교와 구원사적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터미널사역(Terminal work)

이 사역은 중국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중국을 향한 선교 사역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목회 후반기에 한국교회 목회를 마무리하고 아무런 선지식도 없이 중국으로 선교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김바울선교사 역시 2년간의 터미널이 되어 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중국을 배우고 현재의 사역지에 정착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훈련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사역지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생은 물론이고 바른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짧지만 조금이라도 먼저 가서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고 2년 정도 함께 머무르면서 중국을 배우고(언어, 문화, 생활, 음식, 기후적응, 환경적응, 종교정책, 역사 등) 자신의 선교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터미널사역이다.

기도해주세요.

1. 중국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도록.
2. 사역이 본격화되고 영역이 확장되며 열매가 많아지도록.
3. 맡겨주신 새 영혼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중국** 유지승 선교사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목사

지난 2월 중국도 한국의 설 명절처럼 춘절(春節)을 보냈다. 춘절 글자의 의미대로 봄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약25-26℃ 정도의 날씨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도 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도림교회의 정명철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원, 모든 성도들께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그 기도를 통하여 올해도 모든 선교지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지길 바라며 이곳의 소식을 전한다.

1. 사역지 상황

작년 한 해 현지 상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식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의 체류가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결국 비자문 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교민들이 많다는 것은 선교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온다. 예상하기로는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2. 교회 상황

중국정부는 계속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하라는 압력과 함께 예배와 각종 모임이 정부의 종교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승선교사가 섬기는 교회의 온 성도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라”는 2014년도 표어로 새해를 시작하여 힘차게 생활하고 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감사한 것은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온 성도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행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곳을 위해, 중국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기도와 관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기도해주세요.

1. 한인들이 중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조성되도록.
2. 교회를 통하여 좋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3. 교회가 한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설날(春節)에 중국인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다. ‘馬到成功’이다. 말의 해이기 때문에 말의 의미를 빌어 축복한 것이다. ‘마도성공’이란 말처럼 빠르게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중국어로 ‘빠르게’를 ‘馬上’이라고 한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의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말처럼 빠르게’라는 의미이다.

중국에 가면 대부분의 집 대문마다 ‘福’자를 거꾸로 붙여 놓은 것이다.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았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지. 중국인들은 말한다. 거꾸로 붙여 놓아야 복이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인들 만큼 ‘복’을 사랑하는 민족이 있을까 싶다. 그래서 중국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중국 가서 거꾸로 붙여 있는 ‘복’자를 떼어내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신명기 28:2-14을 대문에 붙여 자고. 교인들이 듣고 웃었다.

중국인 교인들에게 신명기 28:2-14절을 큰 글자로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방안에 붙여 놓고 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본문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믿는다.

올해부터 서울중국인교회는 밤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 중국인 교인의 대부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시간이 된다. 게다가 대다수가 교회 근처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서울중국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올 한해 중국인교회의 표어는 ‘듣고 - 聽, 말하고 - 說, 나누자 - 分享’로 정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말하고 나누자는 뜻이다. 첫 사람 아담은 유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없는 삶(無神論)의 길로 갔다. 성경은 그 후유증이 심대하다고 쓰여 있다. 사도 바울은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삶이 참된 삶이요 행복한 삶을 삶속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어 찬송에 ‘징징팅(輕輕聽)’이 있다. 목자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며 살자는 내용이다. 올 한해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푸른 초장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기도해주세요.

1. 중국인선교센터가 세워지도록.
2.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도록.
3. 서울중국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중국인들에게 강물처럼 흐르도록.